

지역 소식통

정읍시,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정읍시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 4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공제 단체 가입 공제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3014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체 어린이집 48개소, 영·유아 1307명, 보육교직원 477명에 대한 공제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보험은 내년 2월 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놀이시설 사고 △가스 사고 화재·풍수해 지원 등 총 15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민·관 합동 토론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8일 지역 내 학습과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속적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담당자, 중간지원조직, 청년단체 등 80여명이 참여했으며 전문가 주제발표, 참석자 질의응답, 토론자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 인구위기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진단과 검토를 통해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대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지역의 정체성과 주도성 확립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변경화 지역공간정책연구소 대표는 '부안군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부안군의 인구현황, 인구정책 등을 분석하고 앞으로 부안군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기초 및 부안군 인구감소 위기 대응 로드맵을 제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벚꽃축제 28일 개최

4월 1일까지 5일간 야간경관조명, 차없는 거리 등 운영

정읍 전변을 아름답게 수놓는 벚꽃들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들을 기다린다.

정읍시는 2024년 벚꽃축제를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정읍전 벚꽃로는 정읍IC 사거리에서부터 상동교까지 4km 구간으로, 3월 말 정도가 되면 2000여 그루의 벚꽃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려 장관을 이룬다. 개막식은 축제 이틀 차인 29일 저녁 6시 30분, 정읍전 특별무대에서 펼쳐진

다. 개막식에는 정읍시 홍보대사인 김용임, 방서희, 김태연을 비롯해 배일호, 임재현, 한강 등 유명 가수가 출연해 축하공연을 펼친다.

특히 연분홍빛을 뽐내는 아름다운 정읍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죽림교부터 정동교까지 2.9km 구간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샘달리~정주교(800m), 초산교~달하다리(400m) 구간은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장 곳곳에는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먹거리전터, 체험공

간, 농·특산물 장터 등 40개의 부스도 운영된다.

이 밖에도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댄스 경연대회와 재즈공연, 버블쇼, 벚꽃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음악이 흐르는 벚꽃길, 벚꽃 포토존, 벚꽃 캔버스 등을 설치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아름다운 봄의 정취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을 준비했으며, 축제장을 찾아 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난 8일 오전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사회복지공제조합회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지원

고창군·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 가입 복지 처우개선 업무협약

고창군 사회복지종사자 1447명이 상해보험에 가입돼 업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사회복지종사자 활력수당'에 이어 '상해보험 가입지원'까지 이뤄지면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큰 환호를 얻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사회복지공제조합회(이사장 강선경)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창군 사회복지종사자 1447명이 상해보험에 가입돼 업무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복 보상을 지원받는다. 보험 가입비 2만원 중 정부와 군이 절반씩 지원한다. 앞서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각

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회복지종사자가 일하는 장기요양기관까지 지원을 확대해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를 포함시켰다. 실제 고창군 노인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 신설(9000만원), 맞춤형서비스 생활지원사 교통비 인상(월 10만원→월 15만원), 사회복지사 의무교육 보수교육비(700만원) 지원 등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사회복지분야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사회복지종사자 활력수당(1인당 10만원)' 시행, '상해보험 가입지원'으로 "한 번 한 약속은 확실히 챙기겠다"는 심 군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설레나, 봄' 제2회 고창 벚꽃 축제 열린다

오는 29일부터 석정지구 일대서

생명이 움트고 설렘이 가득한 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석정지구 일대에서 '제2회 고창 벚꽃 축제'를 연다.

축제 기간은 벚꽃 개화시기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이틀 빨라진 29일부터 31일까지 총 3일이며, 장소는 벚꽃터널 명소로 유명한 고창읍 석정지구 일대에서 개최된다.

고창 벚꽃축제는 지난해 '2023세계유

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봄맞이 특별 이벤트 성격으로 열렸다. 당시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찾아 성공적인 축제로 호평받으면서 올해에도 볼거리·체험거리를 대폭 늘려 축제를 열게 됐다.

고창군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벚꽃길 조성과 풍부한 먹거리 부스, 체험 프로그램, 축하공연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문제와 화장실 문제 등 편의

의시설 개선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찾고 싶은 고창 벚꽃 축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작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벚꽃 축제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설레나, 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2회를 맞게 됐다"며 "더 깨끗하고, 편리하고, 무엇보다도 고창군 벚꽃명소를 충분히 즐기고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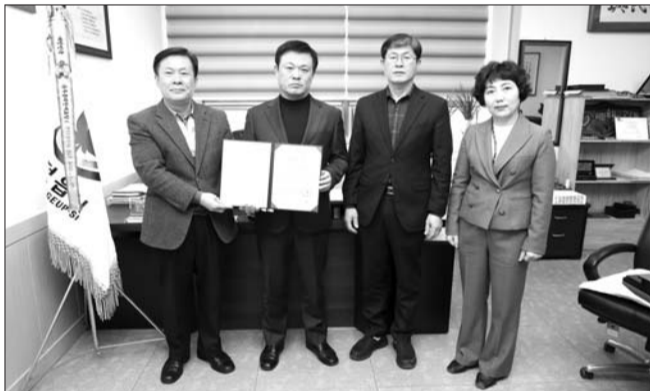
정읍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 선정 '국무총리 표창'

정읍시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35개 기관이 참여해 각종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이다.

시는 지난해 9월 규모6.5 지진발생, 국민체육센터 붕괴 및 가스폭발로 인한 대형화재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에는 시를 비롯한 정읍소방서, 정읍경찰서, 육군8098부대 3대대 등 17개 기관·단체 530여 명 참여해 유관기관 간의 대응력과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훈련 중점사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시 청사 내에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시장 주재)훈련과, 현장에서의 통합지원본부(부



정읍시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시장 주재)을 동시에 진행하는 실시간 통합연계를 통한 유기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안전한 정읍을 위해 유관 기관과 상호 협력해 준비한 훈련

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철저한 훈련을 통해 안전한 정읍시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 실무담당 워크숍 개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부안군수·김재운 부산 금정구청장)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소노벨 변산에서 1박 2일 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지난 2019년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 원자력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원전인근지역 지자체들이 모여 결성했으며 2023년에는 원전인근지역 23개 회원 지자체를 구성해 행정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회장에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에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및 김재운 부산 금정구청장이 선출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20개 지자체



담당 부시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논의가 이뤄졌다. 워크숍 주요 내용은 실무회의를 개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 및 향후 계획, 각 지자체별 제안 안건, 2024년 사업추진계획, 2023년 분담금 집행 결산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원전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